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성폭력 행위자들의 성경험역사와 아동기외상의 통찰에 관한 현상학 연구

공현준*, 신동열**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exual Experience of Sexual offenders and Insight on Unfinished through Psychodrama

Hyun-jun Kong*, Dong-yeol Shin**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t-time Lecturer, *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

요 약 본 연구는 행위자가 성폭력 사건과 연결된 자신의 성적문제를 초기성경험역사를 통해 인지하도록 돕고, 행동과 감정의 표현에 중심을 두는 사이코드라마를 매개체로 성폭력 행위자들의 고착된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는 행위자들의 성폭력 사건과 인지,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실제적인 통찰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사건, 사건과 관련한 과거의 성경험역사와 아동기 외상의 탐색,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감정의 통찰과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행위자들의 사건과 관련된 환경에서 낮은 자기이해 수준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잦은 방어기제 사용을 보였으며,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사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적 요인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성경험역사와 관련하여 왜곡된 남성성과 성인지가 많이 나타났다. 초기 성행위 경험에서 연인과의 감정적 교류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기 성경험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저지른 실제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은 급격히 변화한 가정환경과 아버지에 의한 학대로 연결되었다. 넷째, 사이코드라마의 초기 과정에서 분노로 대변되는 감정의 실제 내용은 슬픔이나 고통, 아쉬움, 떠나는 모친에 대한 그리움은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로 연결되는 과정을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사이코드라마, 성폭력, 성폭력 행위자, 성경험역사, 아동기외상, 통찰

Abstract This study has verified the process of helping actors recognize their sexual problems linked to sexual violence cases through early sexual experience history, and exploring and insighting the stuck feelings of sexual violence actors through psychodrama, which focuses on expressing behavior and emotion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divided into sexual violence cases and perceptions of actors, actual insights through psychodrama, and dealt with past biblical history related to actors' events and events, exploration of childhood trauma, and insights and changes in emotions through psychodrama.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wed low self-understanding levels and frequent use of defense mechanisms against sexual violence cases in an environment related to cases involving sexual offenders, and were aware of the problematic factors affecting the cases in the course of their daily lives, but did not take them seriously. Second, there were many distorted masculinity and adult sites related to participants' biblical experience history. In the early experience of sexual activity, it was often viewed as a sexual object rather than an emotional exchange with a lover, and the contents of the initial Bible experience were linked to actual sexual violence cases committed by participants. Third, childhood trauma of participants through psychodrama led to rapidly changing family circumstances and abuse by fathers. Fourth, the actual content of emotions represented by anger in the early stages of psychodrama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process of sadness, pain, regret and longing for a departing mother leading to objective insight into emotions through the catharsis process.

Key Words : Psychodrama, Sexual Violence, Sexual offender, history of sexual experience, Childhood trauma, Insights

Received 31 Mar. 2020, Revised 14 Apr 2020

Accepted 23 Apr 2020

Corresponding Author: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counme2@gmail.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 문화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수치심에 의해서 자신이 겪은 일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며 숨기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상황은 미투 운동(Me Too Movement)로 표현되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사건과 2018년 검찰청 내부 성추문 폭로사건을 계기로 변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에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겠다는 위드유 운동(With you Movement)이 전개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의 모습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성폭력 가해자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 문화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이들이 많았고 자신의 권력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默殺)하는 행동을 보였다.

2017년 검찰의 범죄분석 통계로 확인되는 성폭력 행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정적 환경을 살펴보면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40대 남성이 주요 성폭력 행위자였으며, 이들의 직업적 환경은 임시직이거나 피고용자로 일하는 형태가 많았다. 행위발생 상황의 특징으로는 마약이나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 상태로, 낯선 사람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을 띠었다.

성폭력 행위의 유형은 행위자의 대부분이 초범이었으며, 성폭력 행위자의 연령은 소년범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40대가 가장 많았다. 성폭력 행위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 행위자의 경우 대부분 공범이 있었고, 성인 행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범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드러난 특징 중 눈에 띄는 점은 병리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성폭력 행위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성폭력 행위자의 출소 이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정밀한 토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거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도소와 관련된 단기적인 방식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행위자들의 재범률 감소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함에도 실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국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에서는 성폭력 행위자들의 재범방지와 치료환경을 위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외국의 교정프로그램은 성폭력 행위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성폭력 행위자들의 행위로 보고 재발을 막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Kia marama,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 워싱턴주의 Twin River, 영국의 SOPT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follow-up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이들 교정프로그램의 목표이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성폭력 행위자가 지니고 있는 병적인 증상으로 보는 접근방식이다. 캐나다의 forensic Behavior clinic, 미국 포틀랜드의 Sexual Abuse clinic, 네덜란드의 Dr. Henri van der Hoeven Kliniek, 캐나다의 Sexual Behaviours clinic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교정프로그램에서는 인지행동만이 아니라 통합적 이론을 통해 성폭력 행위자들의 문제에 접근하며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위와 같은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행위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현상학을 기반으로 한 문제 행동의 원인 탐색과 재발방지의 요소에 대한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의 선행적 방지를 위해 성폭력 행위의 감정적 원인에 접근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방식으로 보며, 성폭력 행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왜곡된 남성성이 행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서 건강한 남성상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또한, 기존의 통계적 접근을 통한 수치화된 효과 검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성폭력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성폭력 행위자들의 삶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행위자들의 성경험역사를 기반으로 성폭력의 원인을 발견하고, 행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며, 행위자들의 목소리로 접근하여 현장에 밀접한 시각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를 매개로 하여 행위자들의 통찰에 대한 심리적 과정과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통해 성폭력 행위의 재범방지 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 첫째, 행위자들의 사건과 연관된 환경은 어떠한가?
- 둘째, 행위자들의 성경험역사와 성폭력 사건의 연결성은 어떠한가?
- 셋째,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드러나는 행위자들의 아동기 외상은 어떠한가?
- 넷째, 프로그램 중 행위자들의 감정의 변화와 통찰의 과정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행위자의 심리사회적 접근

1.1 성폭력 행위자의 특성

성폭력 행위자의 특성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심리적인 특성과 범죄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적인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을 통한 교정적인 접근은 7가지로 일탈적 성에 관한 관심, 사회성 능력의 결핍, 인지적 왜곡, 피해자 공감능력 결여, 정서관리능력 결핍, 불안정한 생활양식과 사회적 지원의 결여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불안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Marshall & Barbaree, 1990; Marshall, 1995; Hall & Barongan, 1997; 여운철, 2006). 한다(한국사회복지기업진흥원, 2015)[8].

Hall & Hirschman(1991)은 성폭력 행위자들이 피해 대상에 대해 일정한 흥분 단계를 거치며 피해자들에 대해 왜곡된 지각과 신념 및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폭력 행위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충동조절능력의 결핍에 대해 Murphy & Barbaree(1994)는 강제적인 성관계에 흥미가 있는 성폭력 행위자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분노 상황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허선호(2013)는 성폭력 행위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반사회성, 병리적 과대자기, 공감 및 도덕성의 결여, 경계의 상실, 인지적 왜곡 및 부인, 충동조절능력의

결핍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병리적 자기과대와 반사회성을 통해 성폭력 행위자의 병리적인 특성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고와 다르다.

임상의 현장에서 성폭력 행위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나, 자신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 없는 다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행위에 대해 성폭력 행위자들이 지닌 주관적인 시선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핍과 인지적 왜곡, 부인으로 연결된다.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얻은 성폭력 행위자들은 공감능력이 높아졌으며 인지적 왜곡을 통한 회피를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1.2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동기 기반 특성분류

Groth(1977)의 범죄 행동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행위자의 특성은 성폭력 행위자의 동기를 기반으로 분노형, 권력형, 가학형, 기회주의자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의하면 성폭력 행위자는 성욕의 해결이 아닌 분노와 지배적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을 사용한다. 이들에게 성(Sexuality)은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불충분한 감정적 욕구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Burgess & Holmstrm, 1974; Groth & Birnbaum, 1979; 유재두, 송병호, 2009).

첫째, 분노형(Anger Rape)은 성폭력의 원천에 분노를 두고 있으며 범죄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고, 신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행위자의 분노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분노형 성폭력 행위자의 심리를 살펴보면 자신의 복수심과 공격성을 드러내고 싶은 실제 대상이 존재하지만, 행동을 억압하는 요소 혹은 두려움에 의해 실제 대상이 아니라 유사성을 지닌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투사한다. 분노형 성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는 분노 표현의 대상이며 분노 원인의 대리적 대상이다.

분노형 성폭력 행위자는 인생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강간 행동을 선택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강간을 통해 상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복수의 완성으로 생각한다. 여성성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남성성을 표현하고자 하며 과격 한 행동이나 위험한 일탈 행동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

을 즐긴다. 성폭력 행위의 대상도 자기보다 높은 연령대에서 선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권력형(Power Rape)은 자기우월성을 성취하기 위해 여성에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자 하며 신봉받기를 원한다. 성폭력의 원천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 능력과 성을 통해 여성을 지배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성폭력 행위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자신이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성과 대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만을 선택하며, 무력화된 여성을 오랜 시간 지배할 수 있도록 어두운 거리나 숲속처럼 타인의 눈이 닿지 않는 공간을 선정한다.

충동적인 분노형과는 달리 대상의 선정부터 무력화 과정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대상의 저항에 대해 분노형에게 격렬한 공격행위가 나타난다면 권력형의 경우에는 도주를 선택한다. 권력형의 특성상 성폭력 행위 대상자의 연령은 동년배 또는 연하의 여성일 경우가 많으며 아동까지도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 성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노출증이나 관음증과 같은 대리적 성행위로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가학형(Sadistic Rape)은 앞서 언급한 분노와 지배적 성향이 변형되어 성적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이들은 대상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 자체로 성적인 흥분과 만족감을 얻는데 목을 조르거나 구타, 입을 막는 행동을 통한 호흡곤란과 공포감 등 대상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것을 즐긴다. 이는 정신병리적인 형태로서 가학형이 지니고 있는 성적 판타지와 결합하며, 재범율이 높고 범행의 주기와 강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띤다.

넷째, 기회주의형은 특정한 심리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지만 주로 절도를 목적으로 한 주택 침입 과정에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충동적인 성욕에 의해서 여성을 강간하는 형태이다. 국내 성인 대상 연쇄 성범죄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행동하다가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행동의 동기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금전적인 이득과 성적 판타지의 충족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연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처음에는 다른 성폭력 행위자의 유형이었으나 행동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추가로 획득함에 따라 기회주의형으로 나타날 가능

성도 존재한다. 성폭력 행위의 대상을 특정 유형에서 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성폭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임상의 현장에서 만나는 성폭력 행위자들의 경우 성욕 문제보다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충동적인 폭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무의식적 욕구와 감정을 객관적인 확인에 의해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분노 표현을 벗어나서 자기반성과 미래계획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성폭력 행위자들이 표현하는 감정은 분노와 슬픔, 우울과 외로움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성폭력 행위자들은 자신이 여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지에 간혀 있는 경우도 존재했다.

1.3 성폭력 행위자들의 범행 단계에 따른 행동특성

여운철(2006)은 성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폭력 전후에 저마다 특유의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이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7단계는 유발 사건(Triggering Event)→ 성적 각성(Sexual Arousal)→ 탈억제 요소·변명(Disinhibition Influence·Excuse)→ 심각한 위기 요인(High Risk Factors)→ 계획수립 기회포착(Planning Opportunity)→ 범행(Offending)→ 범행 이후 조건화(Post-Offending Conditioning)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발 사건(Triggering Event)의 유발 요인은 대인 관계에서 생성되는 부정적인 감정들로서 성폭력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일어난다. 주로 나타나는 감정의 종류는 갈등, 분노, 우울, 불안, 고독이다.

둘째, 성적 각성(Sexual Arousal)은 성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의 유무와 연결되며 성폭력 행위자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과 성적 동기화에 영향을 받는다. 권력 기반은 사회적인 지지, 직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무력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며 피해자를 무력화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셋째, 탈억제 요소·변명(Disinhibition Influence·Excuse)은 성폭력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억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제어 요소를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심각한 위기 요인(High Risk Factors)은 성폭력

행위자가 범죄 행동을 진행하게 하는 인지·정서·상황 요소를 의미한다.

다섯째, 계획수립 기회포착(Planning Opportunity)은 범죄 발생 직전에 나타나는 준비를 의미한다.

여섯째, 범행(Offending)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성폭력 행위자의 경우에는 사법적인 처벌과는 상관 없이 행위를 벌인 후에 특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그 행동을 교정하거나 기피하게 되지만, 성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얻을 경우에는 그것이 동기화되어 성폭력 행동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차후에 재범의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일곱째, 범행 이후 조건화(Post-Offending Conditioning)는 많은 성폭력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지각하고 있으나, 인지적인 왜곡이나 피해자 유발론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은 성폭력 행위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순서와 중요도의 영향 또한 다르게 받는다. 성폭력 행위자들의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이런 연쇄적인 반응을 끊거나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변화시켜 재범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3. 성폭력 행위자 상담의 이론

3.1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에는 기본적인 가정이 존재한다. 첫째, 심리적 결정론(psychic determinism)으로 인간의 모든 종류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선형적으로 경험된 어떤 것에 의해서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가정이다. 둘째, 무의식(unconsciousness)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서 개인에게 자각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의식적인 부분보다 행동에 대한 영향성이 더 많이 미친다는 가정이다. 셋째, 성적 추동(sexual drive)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요구이며 무의식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가정이다. Freud는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여겼으며 이것들을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외부로 표출되기 어려워 억압되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성격 구조가 완성되고, 성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

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동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결한다고 보았다(권석만, 2014).

성폭력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장과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Marshall(1995)은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통해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인 취약성이 성폭력과 연결되고 초기 발달기의 취약성은 성욕조절의 어려움, 대처능력의 부족, 자신의 정서·성적인 욕구에 대한 변태적 충족으로 연결된다고 발표하였다.

임상의 현장에서 Freud의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성폭력 행위자들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성폭력 행위자들의 무의식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행위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적 갈등을 인지시킴으로써 외부로 향했던 문제인식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혼슈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해에 의해서 새로운 행동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적응적 행동을 익히도록 돕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데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Freud의 혼슈는 사이코드라마의 창시자인 Moreno와도 연결되어 역할극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적응적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3.2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Freud가 주장한 아동기 성적발달단계를 계승하여 발달시킨 학문으로서 초기 아동기의 성격구조 발달을 중시한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아동기의 갈등 경험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성장 후에는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대상관계이론의 대상(Object)은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계를 맺는 모든 종류의 타인을 지칭한다. 개인에게 중요한 타자, 혹은 애착대상과 관계하는 형태와 방법을 대상관계라고 정의한다.

Klein(2011)은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라는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젖가슴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경험하는 허기에 대해 충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머니라는 통합된 개체는 젖가슴이라는 대상으로 상징되어 좋은 가슴

과 나쁜 가슴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되며, 좌절을 경험한 유아는 구강기 공격성을 통해서 나쁜 가슴에 대한 공격 환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자신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니는 편집분열적 자리(paranoïd-schizoid position)를 나타내게 된다. 성장 과정에서 유아는 좋은 가슴과 나쁜 가슴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죄책감과 우울을 느끼는 우울 자리(depressive position)로 옮겨 가게 되는데 Klein은 유아의 대상관계 경험이 이후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권석만, 2014).

아동이 양육자와 분리되어 개별화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대상관계를 다루었는데, Winnicott은 개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분리불안을 연구하였다(권석만, 2014) 그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과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을 통해 유아가 양육자와의 분리 과정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개별화 과정에서 유아의 분리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마와의 접촉, 즉 안아 주는 행동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보듬어 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과도 연결된다. 이것은 양육태도에 따라서 진정한 자기(True self)와 거짓된 자기(False self)로 발달되어 나타나며, 진정한 자기는 외부의 영향 없이 나타나는 자발적인 느낌에 의해서 발달되고 표현된다. 거짓된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외부에서 거부될 때 자신을 숨기고 엄마의 욕구에 의해 발달되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인의 분열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표현에 대한 수용성과 인정이 요구된다. 내담자는 아동기에 경험하지 못한 수용과 인정을 이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경험하면서 분열성을 줄이게 된다.

Kernberg(2003)는 아동의 표상을 발전시켜 대상관계를 설명하였다. 유아는 엄마를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분리하여 표상하는데 좋은 엄마의 표상은 긍정적인 자기상과 연합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나쁜 엄마의 표상은 부정적인 자기상과 연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Kernberg는 이를 위한 치료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왜곡과 감정적인 면에 집중한 전이-초점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했다.

임상의 현장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은 왜곡된 자신의 상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원인을 알 수 없

는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아동기 외상과 연결되었는데, 이들은 사이코드라마의 장(場)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과의 접촉-포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감정-분노, 슬픔, 아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사건을 재경험한 수용자들은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대인관계 방식을 탐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Bowlby(1988)는 애착이론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애착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애착대상과의 원치 않은 분리 혹은 상실과 같은 사건에서 느끼는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고통과 성격장애를 설명하였다.

불안정애착의 유형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도 연결되는데 회피형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를 기피하지만 사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나타낸다. 양가애착형은 관계에 대해서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사랑의 대상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와해혼돈형은 내면적인 분열성에 의해 대인관계 시 자기통제능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높은 충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에 대한 갑작스러운 성적 행동이나 공격성으로 외부에 표출된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중요한 치료적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내담자의 대상관계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연되고,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대상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용해야 하며, 내담자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용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상담의 현장에서는 대상관계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역할만큼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아동의 애착과 신뢰에 대한 반응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도 신호로서 보내지며 부모 모두와의 신뢰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4. 아동기 외상

아동기 외상은 주로 아동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상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신체적 학대와 방임-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Bernstein, 2003). 이에 대해 신민정(2015)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과는 다르며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학자들이 아동기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Freud(1939)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성인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정신 병리적인 증상의 원인을 생후 5년간의 정신적 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Alder(1937)는 양육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성인기에 신경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Erickson(1994)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사춘기 이전에는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과 과제의 성취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성인기에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Bowlby(1973)는 부모와의 애착과정에 중심을 둔 애착이론에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내적작용모델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틀을 형성하며 이것이 불안정 성인애착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고했다. Linda & Siegel(1996)은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을 가진 아동들의 90%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아동기 외상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발달시키고 안전과 신뢰, 친밀감과 같은 삶의 안정성과 관련된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아동기 외상의 경험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낮은 학업성취도 및 갈등대처 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능의 손상 그리고 일상생활과 직업, 대인관계와 같은 일생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기능적 손상을 일으킨다(Brown & Finkelhor, 1986; Finkelhor, 1988).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방식으로 표출된다(Campman, 2004). 김세원(2014)은 아동기 외상과 범죄에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아동기 외상이 범죄 행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임상의 현장에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파탄을 일으킬 것 같은 예기불안을 느껴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듯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이면에는 신뢰하는 양육자

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다.

5. 사이코드라마의 이해

사이코드라마는 일반적인 집단상담과도 유사한 치료적 접근으로서 독특한 회복 기제를 가지고 있다. 사이코드라마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디렉터’, ‘주인공’, ‘관객’, ‘무대’이며 연극적인 기본 요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사이코드라마는 연극적인 기법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에 접근하며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의 상담적 회복 기제에 대해 다루었다.

Kellermann(1992)은 집단상담으로서 사이코드라마의 회복 기제에 대해 인지적·정서적·행위적인 방식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인지적 접근은 주인공 경험을 하는 참여자와 관객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관객과 자신의 자아 역할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이해에 대한 객관적 접근, 인지의 통합, 개념의 재구조화 과정을 의미한다.

정서적 접근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면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이코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감정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압하는 역할을 선택해 온 주인공에게 감정 표현과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카타르시스 혹은 감정의 정화로 표현하며, 억압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행위적 접근은 주로 드라마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객과 주인공 사이에서 확인되는 관념과 실제 삶에 접목하기 위한 연습을 위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객과 주인공은 사이코드라마의 참여과정에서 진정한 만남, 텔레라고 불리는 감정의 교류, 전이-역전이 탐색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삶에 접목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행위적 학습으로서 행위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행동의 학습, 상상하기를 통한 가상적 행동의 연습, 놀이적 접근을 통한 무비판적인 접근, 상상적 표현, 흉내 내기를 통

해 다양한 행동적 접근을 진행한다.

이런 회복 기제는 주인공의 과거에 있던 의미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기억과 미해결된 문제 상황으로 표현되며 내면을 드러내는 극화된 이야기나 개인이 지닌 환상과 꿈과 같은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표현, 미래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 혹은 사전적 경험,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신 상태까지 수많은 장면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최현진(2010)은 사이코드라마의 회복 기제에 대해 Goldman의 이론을 통해 주인공의 회복을 위한 와선(渦旋)적인 접근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주인공이 인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Do)에서 시작하여 먼 과거(Re-Do)의 특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충분히 표현하고 행동하며 현재의 장면(Un-Do)의 장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와 역할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상담에서 말하는 상담과정의 나선적 구조와 유사하지만, 사이코드라마는 여러 회기를 통해 진행되는 상담과는 달리 단회기에 일어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임상의 현장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이 무의식 중에 사용되는 전이를 고치도록 돕는데 이는 주인공이 왜곡된 자신의 인지를 고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인지를 고치기 위해서는 주인공과 관객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객도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하게 된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교도소에 재소 중인 성폭력 행위자들의 삶의 경험을 알아보고 그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의 성취를 위해 성폭력 행위자들의 사건 경험에 연결된 특성과 구체적인 성경험을 탐색하였으며,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성폭력 행위자들이 지닌 상처의 표현과 사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성폭력 행위자들의 통찰과정을 살펴 보편성과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집단프로그램의 축어록에서 얻은 참여자들의 기술을 통해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

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식을 취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기반으로 14 회기에 걸쳐 성폭력 사건과 성역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6회의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각 회기당 소요시간은 90분이었으며 주인공 경험을 한 참여자에게서 더 이상 장면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된 구성요소를 Giorgi의 연구방법을 사용해 참여자들의 환경, 개인의 성경험역사,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아동기외상,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통찰의 과정의 4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행위자들의 사건과 관련된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낮은 자기이해 수준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합리화와 부정의 방어기제의 사용을 보였으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문제적 요인을 인지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낮은 자기이해 수준은 주로 참여자들의 감정표현의 방식과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자신이 판단한 표현능력과 객관적인 표현능력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방어기제의 사용은 사건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행동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학습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인지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낮은 공감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낮은 자기이해의 요인은 정서적 위기와 감정적인 위기에 대해서 적응능력을 낮추는 것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폭력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인지한 요소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거나, 일상의 문제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적응방식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병리적인 특성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사건 이후에 참여자들은 초범일 경우에는 범죄에 의해서 자신의 일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지만 재범의 경우

에는 이런 특징이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성경험역사와 관련하여 왜곡된 남성성과 성인지가 많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첫 성경험에서 연인과의 감정적 교류나 책임감이 배제되고 음주와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성경험이 진행된 경우에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에 대하여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보다는 자신의 쾌감이나 필요에 의해서 소모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왜곡된 성인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의 초기성경험과 초기 성경험에서 나타난 내용은 참여자들이 저지른 실제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초기 성경험은 개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며, 시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쾌감을 얻을 경우에는 동일한 행동을 통해 쾌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상 성행동과도 연결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성적 행동들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억압된 행동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얻을 왜곡된 성인지와 참여자가 학습한 극단적인 남성상과 연결되어서 무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참여자가 외로움으로 대변되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주가 동반될 때 강하게 성적 행동화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사이코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가정환경과 아버지에 의한 학대로 인한 것이 많았으며 중요한 감정은 분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가정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는 참여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남성상을 발달시키는 요인과 아동기 외상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불안한 가정에서 도피하거나 부모에게서 이른 독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가출한 참여자들은 일탈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래집단에서 범죄행동과 왜곡된 성인지를 학습하게 되고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패턴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따른 주변인에 대한 분노도 같이 드러났다.

넷째, 사이코드라마의 초기 진행과정에서 표현되는

감정의 실제 내용은 분노였으며 사이코드라마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슬픔이나 고통, 아쉬움, 떠나는 모친에게 느끼는 외로움 등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단순한 분노의 표현에서 사건에서 자신이 느꼈던 아픔과 고통, 슬픔과 그리움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감정의 인식과 표현 능력을 발달시켰으며 카타르시스의 과정 후에는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인지를 하는 형태를 보였다.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통찰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상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탈가부장적인 형태로 자신의 목표가 된 아버지상을 표현하였다. 삶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가족을 지키며 화목하게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아버지로써의 삶을 꿈꾸었지만 실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 실현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은 올바른 남성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학습하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아동기 외상에 대한 통찰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주요 방어기제로 사용해 온 합리화를 객관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에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반성과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지 않기 위한 재범방지요인의 발견, 문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방법을 연습했다.

통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 경험을 한 참여자 뿐만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한 다른 성폭력 행위자들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방어기제를 인지하고, 재범방지요인을 탐구하였으며, 단순히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연습하며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References

- [1] 강희순(2009).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모형구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고영애(2002), 심리극 집단상담이 간호학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공성숙, 배재현(2013),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경험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해리와의 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제 22호, 193-204.
- [4] 공수자(2003),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을 근거로 한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경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권석만(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학지사.
- [6] 김수동, 이우경(2003),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적 측면,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제 1호, 109-132.
- [7] 김수동, 이우경(2004),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서울:학지사
- [8] 김태명(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87호, 5-44.
- [9] 김영환, 정상문, 홍상환, 박은영(2002), 수형자의PAI 프로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 21호, 941-954 .
- [10] 김은영(2012), 여성청소년의 성적학대경험. 가출. 폭력적 비행. 그리고 성관련 비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 6호, 233-272..
- [11] 김은혜(2009), 사이코드라마가 주는 자기개방 및 상담의 효과분석,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12호, 41-54
- [12] 김용지(2012),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지혜(2011).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 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14] 김현성(2011),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14호, 1-14.
- [15] 박수병(2015), 사이코드라마의 치료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박윤주(2017). 연극을 활용한 청소년 여성폭력 인식 개선 방안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17] 박희석(2002), 대학생 우울집단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사이코드라마의 치료 효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18] 박희석, 임수진(2002).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 우울 집단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존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5호, 93-115.
- [19] 엄정순(2009). 성폭력행위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 여성가족부(2010),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 [21] 여운철, 박정일, 윤정숙(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 12호 1-4
- [22] 유재두(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성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유재두, 송병호(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36호, 135-165
- [24] 윤일수(2012), 사이코드라마의 개입과 치유 효과, 한국드라마학회 드라마연구. 제 37호, 85-116.
- [25] 윤일수(2015). 소시오드라마를 통한 성의식의 변화양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18호, 33-57.
- [26] 이정희(2003). 심리극을 경험한 대학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의 변화분석,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6호, 15-40.
- [27] 전은희(2004), 사이코드라마가 미혼모의 우울·충동성·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조미경(2014). 청소년 우울감소를 위한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9] 조은숙(2018).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논문.
- [31] 천해리(2018).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경험과 적용에 관한 현상학 연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2] 최명기(2012), 트라우마테라피-심리학, 상처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다, 서울: 좋은책만들기
- [33] 최현진(2010),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34] 채규만(2006), 성행동심리학, 서울: 학지사.
- [35] 홍숙선(2014). 성폭력 가해대상에 따른 대상관계 차이 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esk Reference To The Diagnostic Criteria From DSM-5. 권준수 번역(2018). DSM-5 간편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 서울: 학지사
- [37] Bell hooks(2004), The Will to Change. 이순역 번역(2017).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서울: 책담
- [38] Eva Leveton(2010). Healing Collective Trauma Using Sociodrama and Drama Therapy, 박우진 외(2015)번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39] Tian Dayton(2004). The Living Stage. 김세준 번역(2012). 상담 및 집단치료에 활용하는 사이코드라마. 서울: 시그마프레스.
- [40] Jacob Levy Moreno, Zerka T. Moreno(2011). Psychodrama - Second Volume. 손창선 외 번역(2015). 사이코드라마-정신치료의 토대. 서울: 아카데미아.
- [41] John Bowlby(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김수임 외 번역(2014). 존 볼비의 안전기지-애착이론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학지사.
- [42] Zerka T. Moreno(2000). Psychodrama, Surplus Reality and the Art of Healing. 황현영 번역(2005). 사이코드라마와 잉여현실. 서울: 학지사
- [43] Zoran Djuric. (2006). Psychodrama: A Beginner's Guide. 최윤미 번역(2007). 사이코드라마가이드, 서울: 시그마프레스
- [44]Adam Blatner(1973), Acting-in: Practical Applications of Psychodramatic Method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45] Clark Moustakas(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46] Groth.A.N, Birbaum.H. (1979), Men who rape: The psychology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
- [47] Hall G.C.N, Hirschman, R.(1991).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669
- [48] Kellermann. P. F(1985). Participant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in psychodrama.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 Sociometry. 123-132.
- [49] Kellermann. P. F(1992). Focus on psychodrama: Therapeutic aspects of psychodrama. London: Cromwell Press.
- [51] Murphy,W.D, Barbaree, HE(1994). Assessment of sex Offenders by Measures of Erectile Respons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Decision Making, Safer Society Press. Brandon
- [52] Roger. K. F(1981). The effects of psychodrama and group therapy on emotional state. Biola College
- [53]Woodworth MI, Freimuth T, Hutton EL, Carpenter T, Agar AD, Logan M.(2013). High-risk sexual offenders: an examination of sexual fantasy, sexual paraphilia, psychopathy, and offence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공 현 준 (Kong, Hyun jun)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박사
- 현재 :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부소장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성상담, 가족상담, 갈등상담 등
- E-Mail : muje01@naver.com

신 동 열 (Shin, Dong yeol)



- 건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상담심리학)
-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등
- E-Mail : counme2@gmail.com